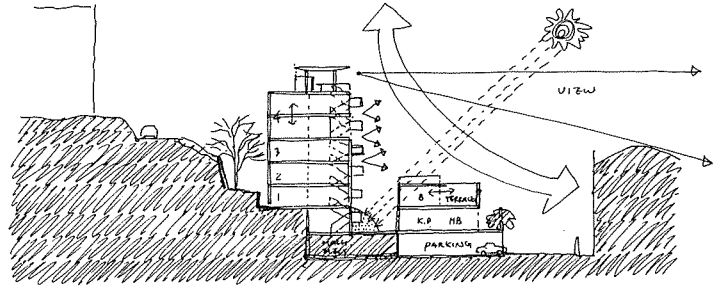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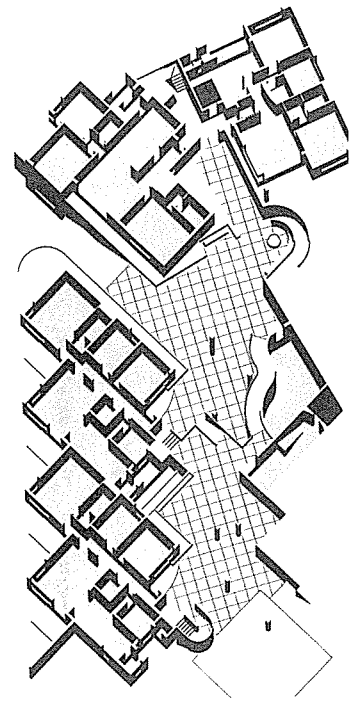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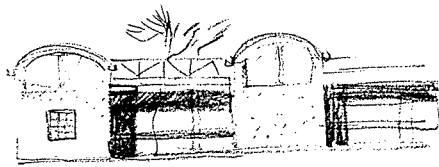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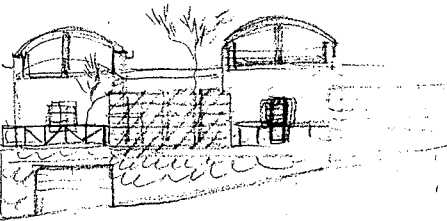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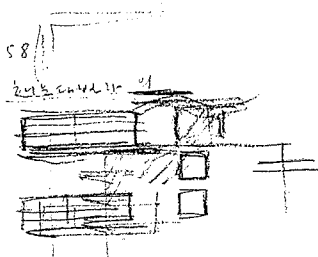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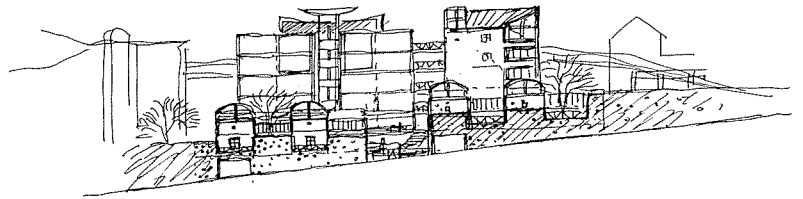
# 부산 해운대 빌리지

Pusan Haewoondae Village

趙成龍 / 종합건축사사무소 우원건축  
Designed by Joh, Sung - Yong



B1 section



- 대지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 대지면적 / A블록 1,336m<sup>2</sup> (18세대)  
B블록 1,918m<sup>2</sup> (18세대)
- 연면적 / A블록 3,202m<sup>2</sup>  
B블록 3,485m<sup>2</sup>
- 용적률 / 221.7%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5층
- 외부마감 / 스테코, 외장타일, 플라스틱 창틀

■ 부산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북쪽에 바다쪽으로 튀어나온 언덕에 세워지는 3블록의 공동주택, 각 블록마다 18세대의 50평형 세대가 건설된다. A, B블록의 설계가 끝나고 이어서 C블록이 계획 중이다.

「달맞이 고개」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수년전부터 이른바 「빌라」라고 하는 공동주택이 갑자기 들어차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발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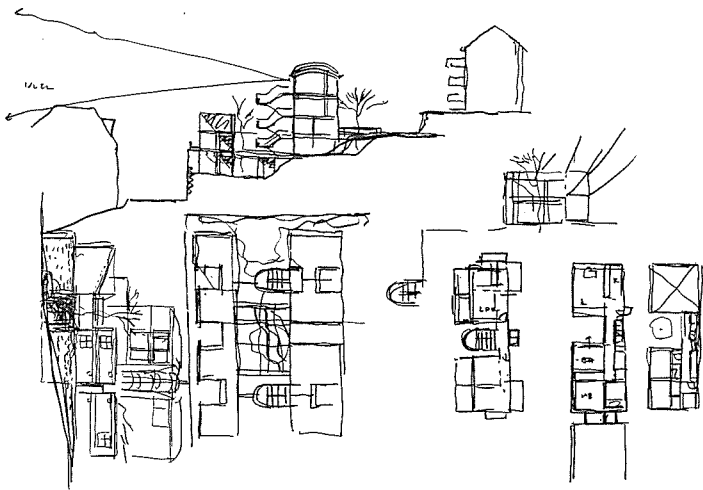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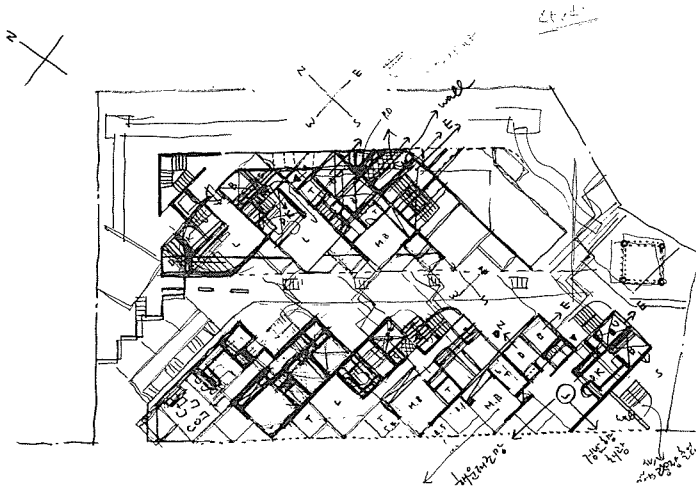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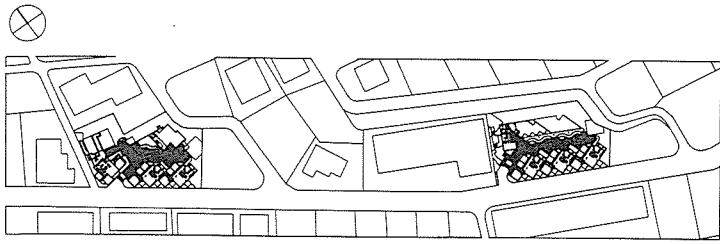
부산의 해안에서도 보기 드물게 수려한 경관을 지니고 있는 명승지로서 대지에서 내려다 보이는 백사장과 동백섬, 오륙도의 조망은 일품이다. 그럼에도 최근의 개발상황은 환경면에서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데다가 종합적인 전체 계획없이 단순 건축의 나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리조트 단지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지역적 장소성을 크게 살리지 못하여 안타깝다.

마치 양과검질처럼 언덕을 싸고

돌아가는 10미터 도로(A에서 C블록으로 올라가면서 약 9%의 경사를 갖고 있는 언덕길이다)에 3블록이 약 200미터 간격으로 면하여 있는데 A, B블록의 남서쪽의 낮은 지역에는, 만사드형 지붕까지 포함하면 거의 4층이 넘는 높은 주택이 이미 늘어서 있어서 바로 해안을 바라 보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다. 집을 지을 때 앞과 뒤, 그리고 옆을 살펴보지 않은 채 자기의 영역 찾기만을 생각하고, 생활의 질보다는 개발측의 잇속만을 지나

치게 추구한 처사에서 비롯한 환경의 열화(劣化)라고 하겠다. 대상이 되는 2개의 블록은 대지의 폭과 깊이를 보아서 하나의 동으로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인동거리 같은 것을 따져보면) 복수가 되기도 힘든 매우 애매한 규모에다가 앞서 설명하였듯이 남쪽(해안쪽)이 무지막지한 호화빌라로 막혀있는 셈이되어 해변의 리조트 성격을 충분히 살리기 어렵게 되었다.

두개의 동으로 나누고 그 사이



의 좁은 골목을 공간화하여 양측 건물의 균형을 이루는 최종안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고, 경사진 지형의 높이에 따라 저층과 고층이 가지는 장점을 각각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해변의 조망이 불가능한 저층의 주택들은 10미터 가로변에 45도 각도로 엮거리면서 협소한 도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이라기 보다는 단독주택의 느낌이 더 강하도록 설정되었고, 뒷쪽의 고층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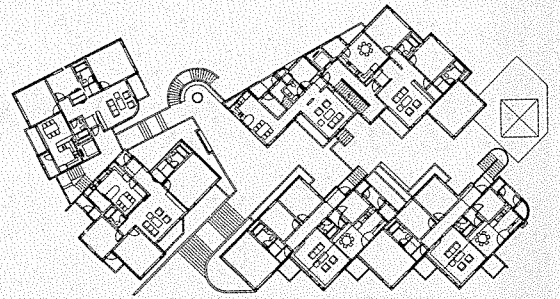
하를 연결하면서 해운대의 경관이 내부공간 깊숙이까지 들어오도록 각도가 틀어져 있다. 경사진 언덕 길을 걸기에 알맞은 크기의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일상(日常)이 경쾌하게 느껴질 중정(court) 공간은 이 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햇빛, 바람, 비가 조우하는 장소, 확장하는 공간, 기복과 상승을 내포하는 이곳의 반공공성(semipublic) 이야말로 이 계획을 지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복잡한 외곽선과

는 다르게 주택의 내부공간은 의외로 단순하다. 생활행위를 담은 주거공간으로서 최소의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가능한 단조롭지만 유기적인 공간으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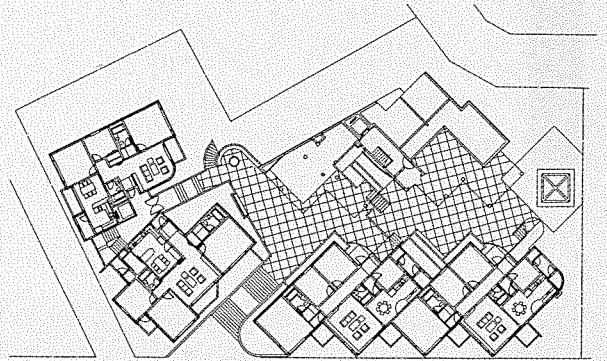
해변 리조트의 성격과는 맞지 않아 보이는 주변의 빌라들은 거의 모두가 붉은 벽돌과 화강석, 그리고 짙은 흑갈색의 아스팔트 성글로 마감되어 있어서 서울의 부자촌 언덕기슭에 꼭 들어찬 그것들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푸

른 바다색, 투명한 하늘과 만나는 접점(接點)으로서의 건축 - 밝은 파스텔 톤의 스티코를 외벽재료로 선택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길에 면한 담은 부근에 있는 어촌의 돌담을 연상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재료를 사용하려고 한다.

맑고 소박하고 건강하고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경관 - 일상적이면서 비일상(非日常)으로 느껴지는 공간의 자유와 주변환경과의 연계감 같은 것이 소중하게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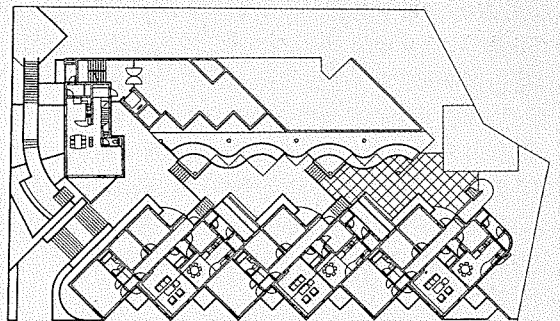
블록 A 상층부 평면도



블록 A 하층부 평면도



블록 B 상층부 평면도



블록 B 하층부 평면도